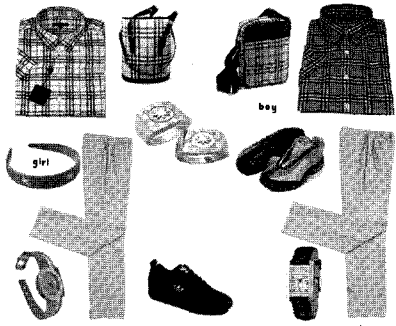


버버리풍, 샤넬스타일 등 명품 인용 광고 못해



최근 '버버리사의 허락 없이 상품 광고에 버버리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가 포함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내려져 인터넷 쇼핑몰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버버리 풍, 샤넬 스타일, 프라다 형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명품 스타일'식 광고 표현을 이용한 광고가 금지된다. 최근 버버리(BURBERRY) 상표의 이같은 사용을 두고 영국 버버리 본사와 국내 인터넷 쇼핑몰 업체 간의 법정 다툼에서 '버버리사의 허락 없이 상품 광고에 버버리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가 포함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정이 성립되어 인터넷 쇼핑몰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9월 버버리사는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파크가 가방, 의류 등의

제품을 선전하며 '버버리 스타일, 버버리 풍, 버버리 체크'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며 '이는 원래의 버버리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본 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인터넷파크를 상대로 부정경쟁 행위 금지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정영진)는 최근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인터넷파크는 버버리사 허락 없이 해당 상표를 부착해 제조·판매하지 않고 이 상표나 상표가 표현된 광고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그동안의 손해에 대해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이 성립됐다고 지난 7월 17일 밝혔다. 이번 경우는 법원 판단에 앞서 양측의 합의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지만 인터넷 쇼핑몰들이 특정 브랜드를 사용, 상품을 선전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이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조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로 결정을 내린 사례는 없지만 이같은 광고 표현이 원 상품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올해 특허출원 가파른 상승 곡선 그려

올들어 특허 출원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7월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출원된 특허는 총 5만6천2백9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 출원된 특허 4만7천7백6건에 비해 18% 늘어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불과 2~3% 증가로 정체되어 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성장이

라 볼 수 있다. 2003년의 경우 12.1%로 가파른 증가가 시작되었으며 2004년 17.4%의 증가에 이어 올들어 더욱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특허 출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내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 특허 출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유럽특허청과 협력 협정 체결

김중갑 특허청장은 Alain Pompidou(알랭 뽕피두) 유럽 특허청장과 지난 6월 독일 뮌헨 소재 유럽특허청 본부에서 '제6차 한·유럽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특허 정보, 자동화, 특허 절차,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 있어서의 공동 협력을 위한 '한·유럽 특허청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양청은 한국과 유럽 지역민들의 특허 정보 이용을 활성화 하고, 양청간 특허정보·자료의 신속한 교류 및 활용을 통한 특허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미국·유럽·일본 특허청 간에 운영되고 있는 3국 전산망(TRInet)에 한국 특허청의 전산망을 연결하고, 양 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관련 각종 특허 자료, 특허정보 데이터를 유럽과 한국 이용자들에게 적극 보급하는 등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 하였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 청은 유럽특허청의 비엔나 지소에 한국 특허정보 공급·확산을 위한 '한국 특허정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합

의하였는데, 동 지원센터는 유럽 사용자들에게 한국의 특허정보 및 특허제도에 대한 상담 및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협정 체결은 최근 한국의 국제출원 규모의 증가로 한국 특허청 보유 기술정보의 국제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최첨단 지능형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으로 알려진 'KIPOnet II'를 개통하여 운영하는 등 한국 특허청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유럽특허청이 한·유럽 간 체계적인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희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럽 내 한국 특허정보의 확산·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양 청은 자동화시스템 개발, 특허정보검색 시스템 개발, 특허전산 표준화 작업 과정에서의 공동 협력 등 한·유럽 간 체계적인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협력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 특허, 특허료 50% 할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할 경우 특허료가 50% 감면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과 공유제가 확산되어 내년부터는 SK와 KT 등 민간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월 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부실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 인수에만 국한되어 있는 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업무 범위를 정상기업, 유망기업 인

수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는 중소기업 M&A를 촉진해 중소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내년 말로 종료되는 기업부고조정기금이 2백억원 규모 산업구조조정 펀드로 개편·연장되어 CRC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산자부는 현재 진행 중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표준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채희봉 산자부 과장은 '기업, 시민, 사회단체, 언론 등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 중이며 대·중소기업 협력을 CSR 표준화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뷰티어드바이스

'피부 트러블'이 걱정된다면... 휴가 후유증



바다와 산으로 휴가를 다녀오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피부 트러블. 햇볕으로 인한 화상을 입거나, 갑자기 태워서 기미, 주근깨 같은 얼룩이 생기는 등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케이스 별로 피부 트러블 해결법을 알아보자!

일광 화상

휴가 후유증의 대표적인 트러블. 처음에는 피부가 붉게 되고 부풀어 오른다. 심하면 물집이 생기고 오한, 발열이 나기도 한다. 일광 화상일 때는 우선 가제를 이용해 얼음찜질이나 냉우유 찜질을 하는데 자외선으로 뜨거워진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얼음찜질 후에는 여분의 물기를 닦아내 피부 건조를 막도록.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주는 스크럽제, 필링제를 이용한 각질 제거는 잠시 미루도록 하고 보습 효과가 있는 마스크나 젤 타입 제품을 이용하여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준다. 또한 밤 10시~새벽 2시 사이에 충분히 잠을 자 피부에 휴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는 피부 세포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하기 때문.

색소 침착

자외선을 많이 쬐면 피부 속 멜라닌이 산화돼 기미와 주근깨 등과 같은 얼룩이 생긴다. 휴가를 다녀온 뒤로 기미가 생겼다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대개 뽕, 이마, 윗입술, 코, 턱 등 얼굴에 생기며 드물지만 팔에 생기기도

한다. 항산화제인 비타민 C 성분이 함유된 에센스를 얼굴 전체에 발라주고 매일 비타민 C를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여드름과 모공

피지 분비가 원활하지 못해 모낭 안에 고이게 되면 여드름이 생기거나 악화가 된다. 휴가에서는 깨끗하게 클렌징을 하기가 어렵고,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밤새도록 놓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생긴다. 특히 음주 후에는 피부 온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모공이 열리게 된다. 따라서 휴가에서는 피지와 각질 제거에 좀더 신경 써야 한다.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는 주 2회 정도 스크럽 제로 각질을 없애야 하며 화상 후에는 유분이 적은 제품을 이용해 딥 클렌징을 해주는 것이 좋다. 세안 때 마지막 헹굼 물은 찬물로 툭툭 두드리듯이 행귀 열린 모공을 조여 주도록 한다. 여드름 피부는 함부로 짜지 말고 화장은 가볍게 하도록. 또 스트레스는 최소화하고 수면은 충분히 취하도록 한다.

'피부 트러블' 해결하는 미용 팩

- 감자 팩 : 일광 화상을 입었을 때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햇볕에 노출된 피부가 화끈거릴 때나 바닷물에 피부가 오염되었을 때 만들어 바르면 좋다. 방법은 감자를 강판에 곱게 갈아 밀가루를 넣고 잘 갠 후 바르면 된다.
- 레몬 팩 : 피부를 희게 한다. 레몬은 즙을 짠 후 레몬즙에 달걀노른자와 꿀을 넣고 개서 얼굴에 골고루 펴 바른 후 씻어낸다.
- 참기름 팩 : 피부를 윤기 있고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달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한 후 흰자는 꿀과 섞고, 노른자엔 참기름을 넣으며 푼다. 참기름을 넣은 노른자와 꿀을 섞은 흰자를 합하여 얼굴에 바르고 30분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낸다.
- 녹차 팩 : 녹차에 미지근한 물을 약간 넣고 우려낸 뒤 맥반석 가루나 녹말로 개어 얼굴에 바른 후 1시간 뒤에 씻어낸다.